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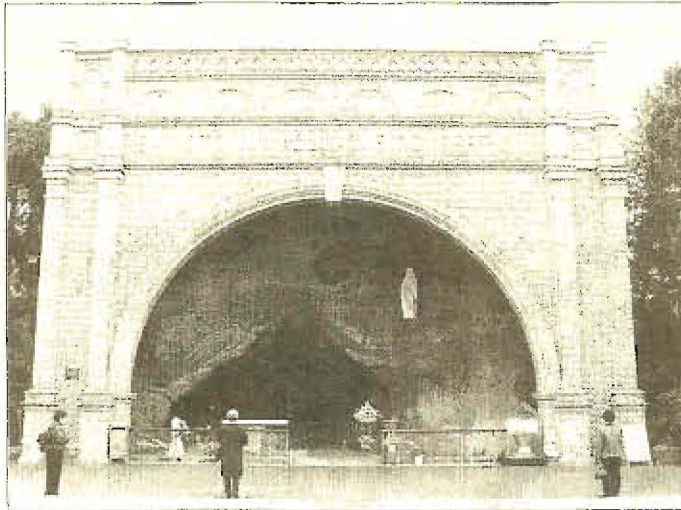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성모 성월)
제32권 25호(나해) 2012-5-13

[묵상]



대구 성모당<1918,대구대교구,대구시 남산3동 소재>

예수님께서 원하신 단 한 가지
당신이 명령하는 계명을 지켜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단 한 가지
저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 바친 가장 큰 사랑.

저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벗을 위해 목숨 바쳐 완성한 사랑
당신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여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이 모든 단 한 가지들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
하느님을 아는 이,
하느님께로부터 뿜힌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장현숙 발바라
특전미사	(생) 채순우 토마스, 임중호 찰스
주 일 낮 미사	(연) 최금옥 말찌나, 이호순 프란체스카, 이정행 테레사, 구영애, 이상일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홍숙현 아가다,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장현숙 발바라, 송봉규 요셉 & 송광량 카타리나, 허정자 레지나 & 허동수 루스, 심재순 & 홍찬기 대건안드레아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신대철 알레르도, 강필성 마오로, 최옥희 테레사 & 최기남 야고보,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김호인 벨라벳다, 이근모 마리아노 & 이행자 리드비나,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녜스 가정, 손미나 켈리나, 엄영숙 마리아 & 엄세종 그레고리오, 이해숙 요세피나 & 이형삼 요셉, 정혜경 카타리나, 임명희 켈마, 홍석인 채칠리아,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이상을 바실리오 사제, 권선호 헨리코 사제

오늘의 전체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10,25-26.34-35.44-48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구원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 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제 2독서 요한 1서(1 St. John) 4,7-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요한(St. John) 15,9-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324	244	170
봉헌	257	265	249
성체	292	289	287
파견	330	어머니 은혜	32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이원론과 세속화된 해석학의 위험성

가). 무엇보다 먼저, 주석 작업이 첫 단계에만 국한된다면 성경은 단지 과거의 본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책에서 도덕적인 결론들을 도출해 낼 수도 있고, 역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자체는 과거에 대해서만 말하게 될 것이고 주석은 더 이상 참으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역사적인 주석 또는 문학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국한시킬 때에는, 살아 있는 성전과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계시사건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성경에 대한 신앙의 해석이 결여될 때에 이것은 단순한 부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해석 대신에 불가피하게 세속화된 해석학이, 곧 신적인 것은 인간 역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신념을 근본으로 하는 실증주의적인 해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학에서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요소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신적 사건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해석들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입장은 성찬례의 제정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되는 신비들과 그 역사적 가치까지 의심함으로써 교회의 삶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적인 것이 역사 안에 들어오고 역사 안에 현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철학적 해석학이 실상 그러합니다. 신학 연구 안에서 이러한 해석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게, 오직 첫 번째 차원에만 머무는 주석과 계시의 역사적 성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의미의 영성화를 향하는 신학 사이의 심각한 이원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 생활을 위해서나 사목 활동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방법론의 두 번째 차원이 부재했던 결과로, 학문적 주석과 거룩한 독서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론 준비를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이원론이 때로는 일부 성직 후보자들의 학문적 양성 과정에서도 불안함과 불확실함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석이 신학이 아닐 때에 성경은 신학의 영혼이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신학이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이 아닐 때 그 신학은 기초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

사랑의 계명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예수님은 사랑을 느끼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표현하신 사랑은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뜬구름 잡는 열은 사랑, 관념적인 사랑, 현실에서 유리된 사랑 그리고 모호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세 가지 방향을 지적하시며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그 방향은 위로, 밖으로 그리고 내면으로의 세가지를 말합니다. 달리 말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그리고 온 정신으로 곧,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으로, 조건 없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단지 사랑의 느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이 충만하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둘째는 예수님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측면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지도 애매모호

하지도 않았습니 다. 완벽한 사랑이 내재된 사랑이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육체적으로 행하고, 온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외치고, 영적으로 행하고, 그의 온 혼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이야기하고, 지성적으로 작용하고, 온 정신을 다 쏟는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뜻은 선택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거나, 떠나가 버리거나,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 등으로 인해 받은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진정 강한 존재가 됩니다.

온 정신, 영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베풀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경멸하거나, 비웃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공감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쓰고, 노래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며 서로 사랑합니다. 단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아니라 서로 나눔으로써 사랑합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울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안나희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체육대회날(5월20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 아침미사 : 7시30분 * 낮미사 : 10시(학생미사와 11시미사 통합) * 체육대회 : 11시에 시작합니다.

◆ 백삼위 세례식 : 5월27일 주일 낮 11시 미사중

● 세례식 전례연습 : 5월23일(수) 저녁미사후
대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어린이와 대부모님도 함께 참석해주시시오.)

◆ 연길 기술학교 조선족돕기 북방 선교모금

연길 기술학교는 가난한 연변지역에 살고있는 조선족 동포를 위해 한국천주교회와 살레시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젊은 이들에게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각종 기술을 가르치면서, 마음에 복음의 가치를 심어주며, 미래의 북한선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16명의 신부, 수사, 수녀 및 봉사자들은 매일 여러 후원자를 위해 기도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삼위성당 교우들의 뜻있는 참여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권선호 헨리코 신부 -

● 일시 : 5월12일 토요일특전미사, 13일 주일미사
● 미사집례 : 권선호 헨리코 신부님(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 뜻있는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보에 삽지된 모금봉투를 이용해주시시오.)

◆ 제9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5월20일(주일) 오전 11시~오후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 : 김치냉장고(1등), TV(2등), 아이패드 및 식사권/가방 등(3등). 우승팀(가족당 쌀2포), 준우승(가족당쌀1포)
● 경품추첨대상 : 추천전행 중 참석자로 제한,
추첨권은 당일 배포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본당건물 Termite 제거작업에 들어갑니다.

본당 건물 전체에 터마이트 제거작업(+ 카펫클리닝)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5월14일~18일)중 성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습니다. 평일미사가 없으며, 단체모임도 다른 날로 옮겨 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부 견진성사 일정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대부모 꼭 참석요망)
● Reflection(성찰의 시간)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 교사 ☎(424)903-6637

◆ 백삼위본당 성소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 성소자 개발과 육성을 위한 기도모임부터 출발합니다.
● 성소자를 위한 미사봉헌 : 매월 첫목요일 오후7시30분
● 회장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본당 신부님과 함께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 일시 : 6월16일(토)~23일(토), 7박8일
● 경비 : \$1,199(인사이드 기준)
● 신청마감 : 오늘 주일(5월13일)까지 연장, 사무실

◆ 2012 FIAT장학금 신청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FIAT 재단은 매년 본당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봉사를 보여준 북미주의 한인카톨릭 학생(12학년~대학원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 \$500이상 총 \$20,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미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FIAT웹사이트(www.fiat.org)
● 마감 : 5월27일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봉사인정프로그램 : GPA3.0 이상 9-11학년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교우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13일(주일) : 마더스테이(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5학년 피자)
● 5월20일(주일) : 체육대회(각 구역별로 점심준비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구자운	김광자	김기정	김병학	김양금	김 옥
	김원모	김원호	김정웅	김종렬	김준호	김중섭	김형순
	남명자	노찬술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박정자	방정복	배기엽	배태임	석순영	우영희	원건희
	윤 철	이귀란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석진
	이영미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장영우	전시용	전정일
	정광미	정규숙	정해홍	조영희	주대중	최희숙	한연만
	한창환	한창주	황학수				합계 : \$4,225

미사헌금 : \$2,716

성전헌금	강순복	구자운	김광자	김기정	김병학	김양금	김 옥
	김원모	김원호	김준호	김중섭	김형순	남명자	노찬술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원건희	이귀란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석진	이영미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정해홍
	조영희	주대중	한연만	한창환	한창주		
							합계 : \$2,880

주보 광고후원 : \$1,000

감사헌금 : 배태임 정열모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에 입을 T-셔츠 공모전

- 대상 : 신앙대회 참가자(8-12학년) * 마감:오늘주일(20일)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상품 : 참가비 중 \$100 공제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 디자인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310)613-9116

◆ 첫영성체 교리반/부모님 모임

- 시간 : 오늘주일(13일) 오전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천교장
- 대상 : 2학년 학생및 첫영성체 교리 학생 및 부모님
- 참가비 : \$20 * 첫영성체 예식 : 6월3일(주일)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테미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 \$50(마감 5월27일/6월1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 일시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남가주 소식

◆ 본당교우 김윤진 개인전 'The Catalina 2012'

- 일시 : 5월12일(토)~30일(수)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오프닝 리셉션 : 5월12일 오후 3시~6시 ☎(213)365-8285

◆ 제5회 2012 FIAT(피아트)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CA
- 참가비 : 무료(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
- 참가대상: 주일학교교장/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 교육, 영성교육
- 신청서 다운로드 : www.fiat.org

◆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판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테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5/9(수)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파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재영 바오로 834-8006 5/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본당 체육대회	오전 11시
---------	--------

하느님의 훈육 방법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절실히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 한없이 감사를 드릴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느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는, 역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입힌 것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오로지 나를 골탕먹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신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마냥 피하고만 싶은 일들도 분명 시간이 흐르면, 그로 인해 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게끔 하신 하느님의 지혜로운 훈육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예상치 못했던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늘 하느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 하나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하느님께 뻔뻔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 없고 어리석은 목소리에도, 하느님은 언제나 늘 계시던 그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혹은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 하고 영문을 모를 때도, 하느님께 답을 묻고 의지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더 이상 나 혼자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연기'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느님이 주관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일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를 표현하는, 연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자라면서 단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사교성이 그닥 좋지 않았던 나는, 몇몇 친한 사람들 하고만 잘 지내며 내 할 일만 성실히 하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하느님은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살아보게 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연기를 통해, 나를 설레게 하고 희열을 느끼게도 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팬들의 조건 없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내 앞에 보여주시면서 개인주의적인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 하느님이 나를 연기자로 이끄신 것은 아마도 그것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김태희 베르다 / 배우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 2012' 년판 발표

**전세계 가톨릭 신자수 11억 9,567만
한국은 513만명... 세계 45번째 많아**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2012년 판 「교회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12월31일 기준 전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1억 9,567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 통계 2009년 11억 8,066만 5천 명에서 1,500만 6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은 513만 5천 명으로 세계 227개 국가에서 45번째로 신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주교 수는 5,104명, 사제 수는 41만 2,236명, 수도자는 77만 6,60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세례자 수는 1,695만 215명이며 그중 7세 미만의 유아세례자 수는 1,428만 3,262명으로 나타났다.